

광주 '두드리'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전통타악연구회〉

세계적 축제...3~8일 개최
사물 판굿·전통연희 한마당
어린이국악단 '아리솔'도 공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와 어린이국악단 아리솔 단원들이 세계적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눈길을 끈다.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신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1947년에 시작된 축제이다. 해마다 8월 중순부터 3주 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며 오페라, 클래식 음악, 연극, 춤,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공연팀이 모여 있다.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올해 페스티벌에는 모두 2만5000여 개의 공연팀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타악기 연구회 두드리는 우도농악, 채상판굿 등의 여러 작품으로 교육 및 공연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국악단 아리솔을 창단해 전통타악에 대해 어린이들까지 관심을 갖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다.

두드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해외까지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펼치기 위해 지난 2월 참가를 신청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학생은 월봉중 이동주군을 비롯한 동국초 이지현양, 이지훈군, 월계초 안시현양, 안재민군 등 총 13명이다.



전통타악기 연구회 두드리 단원과 어린이국악단 아리솔 단원들이 오는 3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선보일 공연을 시연하고 있다. <두드리 제공>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어린이 국악단 아리솔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사흘간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 단원들은 5일~7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리솔의 사물 판굿을 시작으로 두드리 단원들의 고깔 설장구, 삼도 사물놀이로 흥을 더하며 피리산조와 채상설장구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선보인다. 마지막에 펼쳐지는 전통연희 한마당은 부모, 채상고고, 줄공, 비나, 사자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이 포함되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사물 판굿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농악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어지는 고깔 설장구는 지방무형문화재 우도 농악 17호로 선정된 작품이다.

삼도 사물놀이는 행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어우러지는 놀이로 농악의 일부 가락을 얹어서 연주하는 한국 최고의 타악연주다. 두드리와 아리솔 단원이 함께 사물놀이의 빠르고 신나는 가락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연희판굿 한마당이 대미를 장식한다.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이 포함된 이 무

대에는 북한 해서 지방에서 전승되는 대보를 전후의 민속놀이로 액운과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자놀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시영 두드리 대표는 "에든버러 공연을 위해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열정을 갖게 되고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국제대회에서 선보이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본 눈꽃축제, 프랑스 아비뇽축제 등에도 참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웹툰 '운빨 로맨스' 연극으로 만나다

20일까지 기분 좋은 극장

웹툰 '운빨 로맨스'가 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나다.

이번 연극은 오는 20일까지 NEW 상무지구 기분 좋은 극장에서 진행된다.

김달님 원작 웹툰 '운빨 로맨스'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네티즌 평점을 기록한 웹툰이며 류준열, 황정음 주연 드라마로 제작돼 올해 5월 MBC TV에서 방영된 바 있다.

연극은 평소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겨 점점을 찾아다니면서 운명을 극복

해보려는 '점보늬'와 어린 나이에 건물주로 성공한 알뜰남이자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제택후'가 주인공이다.

연극은 정해진 운명을 믿는 여자와 개인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는 남자, 이 둘 사이에서 펼쳐지는 달콤하고 짝맛 나는 사랑을 그렸다.

만13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화요일~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6시, 공휴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전석 3만 원 문의 1600-66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들리츠와 팬아트'...전남대, 석학 초청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사업단'(단장 강신겸·문화전대학원 교수)이 4일 오후 4시 용지관 414호에서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들리츠를 통해 본 팬아트와 팬픽션의 교차보기(Deleuze & Crossover Fan Art/Fiction)'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의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로라 헤트릭(Laura J. Hetrick, Ph.D.·사진)교수)이다.

헤트릭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철학자 들리츠와 가타리의 개념을 빌려, 팬들이 재창조한 팬아트와 팬픽션이 어떻게 장르의 확장과 원본작품인 예

술과 소설의 재구성을 창출했는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헤트릭(Hetrick) 교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Art Education'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예술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국제저명지인 'VISUAL ARTS RESEARCH JOURNAL'의 공동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530-408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국악원, 7~11일 교원 연수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서 참가한 유치원, 초,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2017 여름 국악교육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연수 과목은 교과서에 수록된 장단을 배울 수 있는 장구 반주법, 각 지역 민요의 개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민요수업(남도민요, 경서도 등), 국악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는 국악이론, 강강술래, 단소·소금 등이다.

또 한가지 악기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해금, 가야금, 사물장구 강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음악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음악실기 분야 가운데

소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교육과정을 단소와 소금으로 나눠 진행하고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강강술래(무용+노래+놀이)까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 단소 연주 '청송곡',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전통 무용 태평무, 해금 산조, 흥겨운 삼도 농악가락 등 남도국악원 단원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국악공연을 관람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울림산방, 해양생태관 등 진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남도문화탐방도 기획돼 있다. 문의 061-540-40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인들이 文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소나무' 여름호 발간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소나무' 2017년 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 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문화전문가들이 제안한 '새 정부에 바라는 글'이다. 박정호 전남문인협회장 등 필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 균형감 있는 문화 예술 정책 실현 등을 요구했다.

두번째 특집 기사로는 올해 지정 30주년을 맞은 '예술의 거리'의 현 상황과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글을 실었다.

한희원·정운학·윤남웅 등 지역 작가 45명이 참여해 제작한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 간판 개선 작업 스케치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김정호 향토사학자는 아시아문화전



당이 들어서면서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광주의 옛 관아 건물들이 사라져 버린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밖에 오병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가 남도가 낳은 색의 예술가 윤재우 작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글을 실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황형성'전, 우재길 미술관에서 열린 '문 빅토르 초대전', 광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열린 '정운태 조각전' 등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 소식도 담았다. 문의 062-228-34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영화제 스태프 20일까지 모집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8회 광주여성영화제'를 함께 이끌어갈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홍보와 운영으로 5명 내외다.

여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된 이들은 8월25일 워크숍 후 8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광주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제로 2010년 성 평등 확산을 위한 1회 여성 영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http://cafe.daum.net/wffi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영화제 사무국(062-515-6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점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점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점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점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